

‘여름 꽃의 여왕’ 수국의 향연... 물무산 행복숲 유아숲체험원

2ha 유아숲체험원에 27,000주 ‘수국’ 활짝 “수국 통해 지친 심신 힐링하는 시간 되길”

영광군은 물무산 행복숲 내에 위치한 2ha의 유아숲체험원에 수국 27,000여 주를 작년에 식재했다. 2년생이라 수국꽃 천지까지는 아니지만 지난 1년 동안 유아숲체험원의 구석구석에서 잘 버티고 적응하여 피어난 수국꽃은 물무산 행복숲 산책의 즐거움을 더한다. 수국은 범의과와 낙엽관목으로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 수국은 삼목(쭉꾸미)이 잘

되기 때문에 여름철 그늘 자란 가지나 이른 봄에 자란 가지를 잘라 삼목하면 뿌리가 잘 내린다. 반음지 식물로서 습기가 많고 비옥한 곳을 좋아하며 병충해가 없어 관리하기가 쉽다. 지나치게 건조하면 꽃이 달리지 않는다. 높이는 1~3m로 자라며 꽃은 6~7월에 많이 피어난다. 꽃의 빛깔은 연한 보랏빛에서 남색빛으로 변했다가 마지막에는 분홍빛

이 된다. 추위에 약해서 겨울에는 지상부는 죽고 휴면한다. 겨울의 저온을 겪어야 꽃을 볼 수 있다. 토양이 강한 산성일 때는 청색을 많이 띠게 되고 알칼리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띠는 재미있는 생리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수국은 꽃이나 잎, 뿌리 모두 약재로 귀하게 쓰인다. 특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한 열이 날 때는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여름날 더위를 식혀 줄 만한 시원스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수국을 통해 지친 심신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광=서희연기자**



목포시, 조위 상승에 따른 해수침수 방지 철저

14~18일 오전 2~7시 바닷물 수위 5m 이상 상승 예상

목포시가 대조기인 오는 14~18일(오전 2~7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조석표상 16일 최고 5.26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 차량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

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안저지대에 대한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 금정초·중 골프교실 아크로골프장 체험활동

영암 금정초·중학교는 지난 7일 골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금정초·중학생 6명을 스포츠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역에서 운영하는 아크로 골프장을 견학하고 체험학습을 했다. 이날 고승일 금정면장, 송성수 문체위원장, 김영애 금정초·중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6명(중2,초4)의 학생은 아크로 컨트리클럽에서 골프프치는 기초학습과 18홀코스를 견학하고 체력

향상과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는 미래의 꿈을 키웠다. 앞으로 금정면 문체체육회에서는 시골마을의 작은학교 살리기와 함께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고, 아크로 골프장에서는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체험장소 기부로 학생들의 골프 활동을 돕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공영버스 자유이용권(1일, 2일, 3일권) 발행

오는 18일부터 이용 가능

전국 최초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불편 해소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신안군이 외부 방문객 누구든지 공영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버스 자유이용권’을 발행하여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도모한다.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공영버스 자유이용권(1일권, 2일권, 3일권)을 구매하신 방문객은 신안군 어디에서든지 공영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섬 관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객이 원하는 타입의 자유이용권을 구입하면, 무제한으로 정해진 기간 자유롭게 공

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입가격은 1일 기준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초등학생 2,000원이다.

자유이용권 구매는 신안→목포 간 광역버스(1004호, 2004호, 3004호) 승차 시 운전승무원에게 직접 구매하고,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은 중부권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도입해보고 점진적으로 전 관내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15일까지 농촌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농촌 체류·체험 프로그램 지원

무안군은 마을과 함께 추진 중인 농촌에서 살아보기 2기 참가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귀농·귀촌 준비를 위해 농촌 체류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최장 3개월 간 숙박과 더불어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남도에서 추진해오던 ‘전남에서 살아보

기’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국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건도 더 좋아졌다. 참가자에게는 식비와 같은 생활비용을 제외하고 숙박비용 등 일체 부담이 없고, 오히려 월 15회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연수비가 인당 30만원씩 지원된다. 무안군에서는 청계면 월선마을 다목적 회관을 숙소로 활용 중이며, 이곳은 승달산과 월선

저수지 사이에 위치해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현재 4월 15일부터 1기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2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3개월 간 운영 될 예정으로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이며, 전라남도 의 도시지역에 거주 중인 자이면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산 군수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쌓아 실제 귀농·귀촌을 실행 하실 때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귀농을 원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기자**

함평군, 사방사업 조기 완료...산림재해 예방 ‘총력’

사방댐 4개소·계류보전 1개소 신규

함평군이 장마철 대비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9억여 원을 투입, 사방댐 4개소·계류보전 1개소를 설치했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 사방사업에 자연친화적 공법을 도입해 주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했다. **함평=김광훈기자**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66개소 점검을 완료했으며, 지난 5월부터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 여름도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